

미국 11월 선거와 차기 행정부의 사회정책 방향 및 전망

US November Election and Social Policy Direction under the New Presidency

김태근(아델파이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Kim, Tae Kuen(Adelphi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

1. 들어가며

11월 3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연방 상하원 선거가 끝난 지 3주가 지난 지금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정치적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워싱턴의 정치 일정 혼선은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되어 왔던 바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과 노골적인 정권 인계 거부는 혼란을 넘어 미국의 중앙 정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일단 11월 23일 기준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¹⁾ 대통령 선거의 경우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여 232명의 선거인단을 획득한 트럼프 대통령을 압도하였

다(선거인단의 과반은 270명이다). 총 35석에 대한 선거가 치러진 연방 상원의 선거 결과 공화당 50석, 민주당 48석(2명의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이 확정되었다. 1석의 일반선거(regular election)와 1석의 특별선거(special election)가 동시에 실시된 조지아주에서는 2개의 선거에서 모두 과반을 차지한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 1월 5일 결선투표(runoff)에서 최종 결과가 판가름 나게 되었다. 그리고 435석 전체에 대한 선거가 치러진 연방 하원에서는 민주당 223석, 공화당 212석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연방 하원의 과반은 218석이다).

1) AP통신의 11월 23일자 선거 결과 리포트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Associate Press, 2020).

선거 결과를 요약해 보면 우선 민주당의 하원 장악은 확실해졌고,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당선도 점차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열성 지지 세력의 무차별적 소송과 재검표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세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²⁾ 한편 상원의 승패는 조지아 주의 결선투표에 달렸는데, 만약 조지아 결선투표에서 민주당이 2석을 모두 확보할 경우 50대50으로 동률을 이루고, 상원 공동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캐스팅보트를 쥐기 때문에 민주당이 실질적 상원 다수당이 된다. 하지만 공화당 입장에서 2석 중 1석만 승리한다 해도 상원의 주도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lliott, 2020). 결국 이번 11월 선거의 결과는 내년 1월 5일 이후에나 드러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 계획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Tankersley, 2020). 왜냐하면 백악관과 의회(특히 상원)의 상호 견제 기능이 강한 미국의 정치 풍토를 고려할 때 상원의 다수당 지위가 갖는 중요성은 대통령직에 필적할 만한 것이기 때

문이다.³⁾

상원 선거 결과의 미정은 현직 대통령의 공식적인 인수인계 거부와 맞물려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의 윤곽을 잡아 가는 과정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통상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대통령 취임 전까지 두 달여에 걸쳐 새 정권의 조각과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이슈가 주목을 끌었던 예년과 달리 올해 미국 주요 언론에서는 차기 행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공식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비정상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책 공백은 오히려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제한적인 여건이지만 지난 유세 과정을 통해 트럼프와 바이든 캠페인이 보여 주었던 주요 공약을 비교하여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예단해 보고 선거 결과에 따른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이러한 시도는 11월 선거 이후 차기 행정부의 구체적 정책 논의가 담보 상태에 머무르는 지금의 상황에서 유의미한 작업이라 하겠다.

2) 트럼프 측에서 제기한 일련의 선거 불복 소송들은 주법원 및 연방법원에서 대부분 기각되었으며, 재검표 요구도 최근 조지아주 재검표 사례에서 보듯 트럼프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선거 결과 수용에 대한 공화당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Watson, 2020).

3) 연방 헌법에 따라 상원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권을 비롯하여 연방 예산 결정권, 주요 인사에 대한 청문권, 연방 기구 및 행정 부처에 대한 감사권 등을 갖는다(United States Senate, nd).

2. 트럼프와 바이든 캠페인의 주요 정책 공약

이번 11월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유세 과정을 통틀어 정책 의제가 실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단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미증유의 사태 때문인데, 그 사회경제적 파장이 다른 이슈들을 압도하였다. 이에 더하여 5월에 불거진 극단적 인종 갈등 문제가 양극화된 미국의 당파성을 더욱 극대화하였으며, 이러한 정치 환경 속에서 정책 담론이 설 자리를 찾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트럼프·바이든 두 진영 모두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의도적 모호성’을 선택하였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전자인 바이든의 캠페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 사태 대응 실패를 강조하며 정권 책임론에 집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여론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여타 정책 화두를 제기하는 데 소극적이었다.⁴⁾ 이는 2016년 도전자였던 트럼프의 캠페인에서 건강보험 개혁과 이민정책 변화라는 굵직한 주제를 선점하며 여론의 이목을 끌었던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그럼에도 이번 대선 TV토론과 유세에 동원된 양 진영의 논조들을 분석해 보면 각각의 캠페인에서 추구하는 정책

적 지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세 영역(건강보험, 조세·최저임금, 사회보장연금)의 주요 사회정책과 관련하여 두 후보의 핵심을 공약을 간단히 살펴본다.

가. 건강보험

먼저 두 진영이 극명한 대립을 보였던 정책은 건강보험 개혁, 즉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논쟁이었다. 이미 2016년 대선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의 전면적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삼아 왔다. 실제로 집권 초반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트럼프케어로 대체하는 데 정치적 역량을 쏟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 당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던 공화당의 반발로 그 계획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만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하여 오바마케어의 축소를 시도해 왔으나 실효성은 크지 않았다. 이에 트럼프 진영은 2기 행정부의 핵심 의제로 다시 한번 오바마케어의 폐지를 들고나왔다.

반면 바이든 캠페인은 오바마케어의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바이든 진영은 ‘public option’이라는 조항의 신설을 통해 기존 직장 건강보험(employer-based insurance)이나

4) 진보 진영과 중도 진영을 아우르는 반트럼프 전선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이든 캠페인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책 주제에 대하여 철저하게 무 대응으로 일관하였는데, 이는 바이든 후보 개인의 특징과 맞물려 ‘적이 없는 포용적’ 지도자상을 만들었고, 이러한 이미지를 선거의 주요 전략으로 활용하였다(Peek, 2020).

사적 보험(private insurance) 가입자들도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같은 공공보험(public plan)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핵심 구상을 제시하였다(Happe & Sullivan, 2020). 이러한 시도는 오바마케어의 구조적 약점이라 할 수 있는 공공성의 부족을 보충하여 현행 건강보험 제도를 보다 획기적인 공적 보험 체계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조세/최저임금

이번 선거에서 양 캠페인이 격돌한 또 다른 사회정책 의제는 조세와 최저임금 분야였다. 먼저 조세안의 경우 트럼프 측은 대규모 감세를 통하여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가계의 재정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된 기존의 감세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반면 바이든 진영은 고소득 계층의 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에 방점을 두었다. 바이든의 증세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40만 달러 이상의 가구 소득 대상에 한하여 실질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이들의 면세 항목(itemized deductions)을 축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에서 축소된 법인 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Mercado, 2020).

한편 최저임금의 경우 캘리포니아나 뉴욕 주 등지에서 주(state) 차원의 최저임금 인상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2018년부터 워싱턴 정가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김태근, 2018). 이후 민주당 의회 지도부를 중심으로 연방 최저임금의 인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11월 선거를 계기로 바이든 측은 연방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7.25달러에서 두 배 이상 증액된 15달러로 인상하는 공약 내세웠다. 반면 트럼프 측은 연방 차원의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위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대신 개별 주(state) 차원에서 각 주의 상황에 맞게 차등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osenberg, 2020).

다.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마지막으로 짚어 볼 사회정책은 사회보장연금 개혁과 관련된 양 진영의 입장이다. 올해 4월 미연방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은 사회보장연금이 2035년 고갈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후 의회 예산국(Congress Budget Office)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고갈 시기가 2031년으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비관적 관측을 추가하였다. 사회보장연금 제도에 대한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사회보장연금 개혁의 일

환으로 트럼프 측은 일종의 목적세인 사회보장세(payroll tax)를 폐지하고 대신 연금 지급의 재원을 전부 일반 세원(general revenue)에서 충당한다는 구상을 제시하였다(김태근, 2020a). 트럼프 캠페인은 어떤 방식으로 세원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이론적으로 공적 연금의 근간을 허무는 매우 극단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 세원으로 연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예산이 매년 의회를 통과해야 하며 정치적 합의가 무산될 경우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⁵⁾

이에 반하여 바이든 측은 급여의 확대와 재정 확충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입장이 다. 먼저 급여 측면에서 저소득 연금 수급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소급여(special minimum benefit) 기준을 인상하여 연방 빈곤선의 125% 수준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현재 886달러인 최소급여액이 1300달러로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Konish, 2020). 재정 확대 측면에서는 연금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급여세의 인상을 통하여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

다는 방침이다. 현재 급여 세율은 12.4%(고용인과 임노동자가 각각 6.2% 부담)인데, 최고 소득 기준(wage base)이 13만 7000달러(2020년 기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급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바이든 공약에 따르면 급여 세율과 현행 최고 소득 기준은 유지하되 단 연 40만 달러 이상의 소득분에 대해서는 급여세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Olson, 2020). 이는 앞서 소개한 바이든 캠페인의 고소득 증세와 맥을 같이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3.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사회정책 방향과 전망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거 유세 기간을 통하여 트럼프·바이든 양 진영은 주요 사회정책에서 상이한 기초를 보여 주었다. 11월 말 현재 아직까지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⁶⁾ 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차기 바이든 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사회정책들이 전개될지 조심스럽게 가늠해 보고자 한다. 우선 바이든 캠페인에서 제시

5) 실제로 2019년 초 연방정부 섰다운 때 일반 세원으로 운영되는 복지 프로그램들이 지급 불능 위기에 봉착한 전례가 있다(김태근, 2019).

6) 11월 23일 현재까지 트럼프 캠페인은 대선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였던 사회정책 관련 공약들을 종합해 보면 연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소득재분배에 주안을 두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바마케어 확대 공약에서 보듯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모델과 같이 공적 보험 부문을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은 궁극적으로 사보험(private plan) 중심의 건강보험 체계에 대한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고소득자 및 법인에 대한 추가적 과세와 최저임금 및 저소득층의 사회보장연금액 인상은 ‘증세와 복지의 확대’라는 가장 전형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의 조합이라 하겠다. 바이든 캠페인의 이러한 정책 기조는 현 트럼프 행정부가 역점을 두었던 감세 및 연방정부의 역할 축소 전략과 대척점을 이룬다는 점에서 차기 정부의 사회정책 분야에서 많은 변화의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 기조를 어느 정도의 보폭으로 실현하느냐이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정치 구조상 의회 권력의 동의 없이는 어떤 사회정책안도 제도화할 수 없다. 이는 단순히 여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느냐의 문제를 뛰어넘어 백악관의

정치적 역량과 결부된 사안이다. 클린턴 1기 집권 기간 심혈을 기울인 의료 개혁 입법은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한 가운데 좌초되었고,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의제였던 오바마케어 대체안도 공화당이 통제하는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다(김태근, 2017). 백악관과 의회의 상호 관계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방증이다. 더군다나 차기 바이든 정부의 의회 지형은 더 도전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의 경우 민주당이 다수당을 유지하지만 공화당과의 격차가 줄었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 특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당장악력이 쇠퇴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론의 무조건적 통과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House, 2020). 또한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원의 상황은 더욱 녹록지 않은데, 11월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조지아주의 결선투표를 예상해 보면 민주당이 1석을 더 추가하여 공화 51, 민주 49의 공화당 우위 구도가 전망된다.⁷⁾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최소 2022년까지 의회의 전폭적 지지를 기대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러한 정치적 여건에서 차기 바이든 정부는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과의 관계

7) 이는 민주당 입장에서 현실적인 ‘최상의 경우’를 가정한 것이고, 실제로 공화당이 2석을 모두 석권할 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Phillips, 2020).

설정에서도 주도권을 잡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치적 약점은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안들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추동력을 확보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에 긍정적인 요소들을 간추려 보면, 우선 대통령 당선인 본인이 상원에서 40여 년(오바마 정부의 부통령 재임 8년 포함)의 정치 경험을 쌓은 백전노장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상원의 생리를 잘 파악하고 있으며 공화·민주 양당에 걸쳐 튼튼한 인맥을 가지고 있다.⁸⁾ 이는 아칸소 주지사에서 워싱턴 정계로 직행한 클린턴이나 정치 경험이 전무했던 트럼프와 두드러지는 차이이며, 바이든 행정부의 큰 자산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당이 된다 하더라도 수적으로 간발의 우위를 점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사실이다. 즉 공화당 상원의원 중 1~2명의 동조만 얻어도 법안의 상원 통과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공화당 내 중도 노선을 형성하며 초당적 행보를 이어 온 수전 콜린스와 리사 머카우스키의 원이 주목받고 있다.⁹⁾ 바이든 행정부의 정

책 성패는 사실상 이 두 의원의 영향력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DeBonis, 2020).

즉 바이든의 노련한 정치력으로 협치의 전통을 되살릴 경우 유의미한 정책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공화당의 협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바이든 캠페인의 공약 중 중도적 성격의 정책에 입법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Brown, 2020). 이런 점에서 오바마케어의 확대나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 등의 정책안들은 후순위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오바마케어에 대한 공화당 내의 반대 목소리가 원체 완강하며, 증세에 대한 비판적 견해 또한 전통적으로 매우 높기 때문이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이나 사회보장연금 개혁안이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 협상 정책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인상안의 경우 뉴욕주 등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별 또는 산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고, 유예기간을 도입하여 점진적 인상을 유도할 수 있다. 즉 입법화 과정에서 협상의 여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8) 여기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실질적 협상 파트너가 될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포함된다(Hughes & Thomas, 2020).

9) 공화당이 대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는 가운데 두 상원의원이 가장 먼저 바이든의 당선을 축하하였다(이는 관례상 결과에 인정한다는 제스처이다). 두 의원 모두 지난 10월 에이미 배럿 연방 대법관의 상원 인준안에 대해 당론을 거스르며 반대 의견을 개진하였다(Reuters Staff, 2020).

다. 사회보장연금 개혁안의 경우도 급여와 재원 조달 방식의 변화에서 다양한 조합¹⁰⁾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화당을 협상의 장으로 유도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점에서 협치의 대상으로 적합하다 하겠다.

4. 나오며

이상으로 미국의 11월 선거 결과와 차기 행정부의 사회정책 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팽배한 현 시국에서 한 가지 확실한 점은 향후 주요 정책을 둘러싼 백악관과 의회의 대립이 고조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사회정책 외에도 외교·안보, 통상·산업, 에너지·환경 등 여러 방면에서 공화·민주 양당의 견해차가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더군다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회 내 권력 판도에서도 양당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사회정책 변화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치적 협상력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도적 사회정책 도입에서 공화당의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 내 진보 그룹이 주

장하는 진보적 의제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관건이 되리라 본다.¹¹⁾

한편 차기 바이든 정부의 첫 시험대는 코로나 2차 구제안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폴리티코 조사에 의하면 미 유권자의 70%가 바이든 당선인의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 2차 구제안 통과를 꼽았다(Budryk, 2020).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끌여온 구제안 협상은 10월 말 최종 결렬되었는데, 마지막 담판에서 민주당은 2조 2000억 달러, 트럼프 백악관은 1조 8000억 달러를 각각 제시한 반면 공화당은 5000억 달러를 마지막 선으로 제시하였다(Picchi, 2020). 현재 백악관의 정무적 기능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차후 협상의 주체는 민주당(백악관·하원)과 공화당(상원)이 될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의 예산 차이에서 보듯 트럼프 백악관보다 한층 까다로운 상대를 맞이하게 된 셈이다. 이를 의식하듯 바이든 당선인은 성명을 통해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한 3조 4000억 달러 규모의 민주당 원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며 구제안 협상 과정에 적극 개입할 것임을 암시하였다. 이에 미국의 사회정책 연구자들

10)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태근(2020)에 기술되어 있다.

11) 단적인 예로 민주당 진보 진영의 대표 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1인당 5만 달러까지 학자금을 전액 면제(cancellation)하는 전향적 조치를 바이든 행정부의 1호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Ellis, 2020).

은 1월 5일 조지아주 결선투표와 코로나 2 따라 차기 바이든 행정부 사회정책의 보다
차 구제안 협상에 주목하고 있다. 그 결과에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 김태근. (2020). 미국 사회보장연금의 위기: 트럼프 행정부의 급여세 유예 행정명령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보장리뷰, Vol. 14.
- 김태근. (2019).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과 WIC 프로그램의 재조명 (US Federal Government Shutdown and WIC). 국제사회보장리뷰, Vol. 8.
- 김태근. (2018). 뉴욕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국제사회보장리뷰, Vol. 4.
- 김태근. (2017). 오바마케어 대체에 실패한 트럼프케어: 미국 의료보험정책의 정치사회적 함의. 국제사회보장리뷰, Vol. 2.
- Associate Press. (2020). Results: Election 2020. Retrieved from <https://www.msn.com/en-us/news/elections-2020/results-map?ocid=msedgntp>
- Brown, L. M. (2020). Joe Biden's political opportunity: Begin at the center, then move left. Retrieved from <https://thehill.com/opinion/white-house/526130-joe-bidens-political-opportunity-begin-at-the-center-then-move-left>
- Budryk, Z. (2020). 2 in 3 say coronavirus relief should be top priority for Biden in first 100 days: poll. Retrieved from <https://thehill.com/homenews/administration/527308-2-in-3-say-passing-coronavirus-relief-package-should-be-top-priority>
- DeBonis, M. (2020). Biden's agenda may rest on centrist Republicans — and the return of a bygone Senate era. Retrieved from <https://www.msn.com/en-us/news/politics/biden-s-agenda-may-rest-on-centrist-republicans-and-the-return-of-a-bygone-senate-era/ar-BB1b05hX?ocid=msedgntp>
- Elis, N. (2020). Warren urges Biden to cancel student debt: 'Single biggest stimulus we could add'. Retrieved from <https://thehill.com/policy/finance/526533-warren-urges-biden-to-cancel-student-debt-single-biggest-stimulus-we-could-add>
- Elliott, P. (2020). Georgia's Runoffs Are About So Much More Than Senate Power. Retrieved from <https://time.com/5910666/georgia-senate-runoffs/>
- Happe, M. & Sullivan, K. (2020). Trump vs Biden on 9 major policy issues ahead of the debates. Retrieved from <https://www.msn.com/en-us/news/politics/trump-vs-biden-on-9-major-policy-issues-ahead-of-the-debates/ar-BB19x1CU?ocid=msedgntp>
- House, B. (2020). Pelosi's Power Takes a Hit With Diminished U.S. House Majority. Retrieved from <https://www.bloombergquint.com/politics/pelosi-s-power-takes-a-hit-with-diminished-u-s-house-majority>
- Hughes, S. & Thomas, K. (2020). Biden and McConnell, Old Sparring Partners, Hold Key to Cooperation. Retrieved from <https://www.wsj.com/articles/biden-and-mcconnell-old-sparring-partners-hold-key-to-cooperation-11605052194>
- Konish, L. (2020). Here's what a Biden presidential win may mean for your Social Security benefits. Retrieved from <https://www.cnbc.com/2020/09/20/what-a-biden-presidency-could-mean-for-social-security-benefits.html>
- Mercado, D. (2020). Here's where Biden and Trump stand on your taxes. Retrieved from <https://www.cnbc.com/2020/10/20/heres-where-biden-and-trump-stand-on-your-taxes.html>
- Olson, S. (2020). Trump vs. Biden: Their Stances on Social Security, Medicare, and Other Issues Important to Older Americans. <https://www.msn.com/en-us/money/retirement/trump-vs-biden-their-stances-on-social-security-medicare-and-other-issues-important-to-older-americans/ar-BB1aiDY6?ocid=msedgntp>
- Peek, L. (2020). Biden could lose Georgia Senate races all by himself. Retrieved from <https://thehill.com/opinion/campaign/525973-biden-could-lose-georgia-senate-races-all-by-himself>
- Phillips, A. (2020). What are the odds of Democratic wins in the Georgia runoffs?. Retrieved from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20/11/06/what-are-odds-democratic-wins-georgia-runoffs/>
- Picchi, A. (2020). What's the status of a second \$1,200 stimulus check? Retrieved from <https://www.cbsnews.com/news/second-stimulus-check-status-update-2020-11-24/>
- Reuters Staff. (2020). Republican Murkowski, who opposed pre-election Supreme Court confirmation, will vote for Barrett. Retrieved from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court-barrett-murkowski/republican-murkowski-who-opposed-pre-election-supreme-court-confirmation-will-vote-for-barrett-idUSKBN2790YE>

Rosenberg, E. (2020). Biden wants to raise federal minimum wage. Trump doesn't. A look at their debate disagreement. Retrieved from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20/10/23/debate-minimum-wage-increase/>

Tankersley, J. (2020). Biden's Policy Agenda Rests Heavily on Senate Outcome. Retrieved from <https://www.nytimes.com/2020/11/11/business/biden-policy-agenda.html>

United States Senate. (nd). Powers & Procedures. Retrieved from <https://www.senate.gov/history/powers.htm>

Watson, K. (2020). GOP starting to tell Trump it's over: "Stop golfing and concede". Retrieved from <https://www.msn.com/en-us/news/politics/gop-starting-to-tell-trump-it-s-over-stop-golfing-and-concede/ar-BB1bfVsP?ocid=msedgntp>

Zeballos-Roig, J. (2020). Joe Biden urged Congress to immediately pass a \$3.4 trillion Democratic stimulus plan. But both parties have stopped negotiating. Retrieved from <https://www.businessinsider.com/biden-democratic-stimulus-plan-congress-republicans-negotiations-2020-11>

11